두 개의 문제

이 우주에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지구, ‘D-Terra’외에도 수많은 세계와 행성이 존재한다. 그것이 D-Terra에서는 21세기 현대 과학의 정설이었다.

15세기 경 오스트레일리아에 첫 번째 게이트가 열린 이후 차원을 넘어 지구로 유입되는 이종족들은 점점 많아져 갔다. 결국 지구를 지배하던 인간들은 오랜 싸움과 인구의 소멸 위기 끝에 그들과의 화합을 택했다.

‘수’로 말하자면 그중 ‘제 303번 차원’과 연결된 ‘제 13번 고정 게이트’에서 D-Terra로 넘어온 라보라도였다.

세상의 온갖 미스테리와 수수께끼를 연구하는 수에게 D-Terra는 연구할 가치가 충분한 행성이었다. 제 303번 차원의 기술력도 무척이나 우수하고 차원 이동 포탈의 발명은 그곳에서도 가히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으나, D-Terra라는 차원에는 인공적으로 포탈을 생성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자연스럽게, 다른 차원으로의 포탈이 열리고 있다지 않은가. 그래서 수는 자발적으로 그곳으로 파견을 요청했고 차원 이동 포탈을 통해 D-Terra에 차원의 문을 열었다.

그때부터 수에게는 현재까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첫 번째 문제는 처음 차원 이동을 마쳤을 때, 포탈의 목적지를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의 공원 한가운데로 설정했다는 것에서 시작됐다.

따지고 보면 도시의 공원이란 태평양 바다 한복판이나 고속도로 중앙 따위의 험난한 곳들보다는 상당히 안전하고 또 무난했다고 판단할

Copyright 2025. 사이로핀 all rights reserved.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서울은 인구도 많고 교통편도 편리하다고 하니, 처음 방문한 라보라도가 길을 잃거나 숙소 하나 없는 시골에서 노숙할 염려도 없다. 그러니 이보다 적합한 목적지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설정하였는데…….

그때를 회상하면 수는 아직도 떠들썩하고 시끄러운 소란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제 303번 차원과는 다른 새로운 풍경에 놀람도 잠시, 라보라도가 아닌 난생 처음 보는 생명체들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에게 꽂혀들던 경험은 상당히 부담스러웠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작은 개체들이 지르는 비명과 커다란 개체들의 경계심 그득한 몸짓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들이 라보패드 비슷한 자그마한 판때기로 어딘가에 연락한 후엔 순식간에 가지각색의 외형을 한 개체들이 달려와 저마다 무기로 추정되는 것을 들고 수를 둘러싸기까지 했고.

그 이후는 속전속결. 대한민국의 행정 관리 체제는 다른 나라보다도 월등히 체계적이었고, 수는 차원 이동을 하자마자 8분만에 격리 대상자가 되어 관리국으로 이송되었다.

이송 중에 듣기로 수가 제 303번 차원에서 D-Terra로의 포탈을 열기 직전까지 대한민국에 열린 '고정 게이트'는 모두 12개였다고 했다. 고정 게이트는 모두 24시간 내내 게이트 관리국의 감시 하에 보호되고 운영되었으니,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평범한 게이트였다. 반면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고 새롭게 생긴 '돌발 게이트'는, 발견 즉시 신고의 대상이 될 뿐더러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 선포, 근거리에 재난 알림 발송, 게이트 관리국의 신규 게이트 전담 팀 파견, 마물 대항 협회의 헌터 소집, 유입 개체 격리라는 과정이 필수로

Copyright 2025. 사이로핀 all rights reserved.

동반된다고 했다.

물론 수가 생각하기에도 대한민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당한 일이었다. 그 게이트에서 어떤 종족이 넘어올지 모르고, 혹시라도 게이트 너머에서 유입된 이들이 대화가 통하지 않거나 자신들에게 적대적이라면 게이트 주변이 전쟁터나 다름없는 현장으로 변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러니 수가 열어버린 차원의 문은 고정 게이트로 인정받기 전까지 기피의 대상이자 심각한 관찰 대상이었다. 관찰을 행하는 주체로서 평생을 살아온 수에게 관찰을 당하는 행위는 썩 유쾌하지 못했다. 자동차에 쑤셔넣듯 던져진 후 관리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위험한 존재가 아니며 당신들에게 호의적입니다'라고 D-Terra의 공용어로 번역해 준 라보패드가 없었다면…….

거기까지 생각한 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라보패드가 있는 상황에서도 필수 절차라며 관리국에서 온갖 신체검사와 설문조사를 거쳤는데 라보패드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지난한 조사의 대상이 되었을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어쨌건, 수가 D-Terra에 파견을 온 지도 벌써 이곳의 시간 기준으로 반년 정도가 흘렀다. 그러나 이 행성이 수많은 차원과 연결되는 이유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하기사, D-Terra의 주민들이 서로 온갖 모양의 머리를 맞대고도 몇 세기동안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혼자서 단기간에 밝혀내기는 어렵겠지. 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우산을 들고 비 오는 서울숲을 거닐고 있었다.

"오히려 연구할 것도 많으니 좋지."

그렇게 혼잣말을 하자마자 수의 하얀 랩가운을 토도도 기어올라

Copyright 2025. 사이로핀 all rights reserved.

얼굴을 가린 가면 위로 펄쩍 뛰어든 축축하고도 시퍼런 생명체가, 수가 D-Terra에서 맞이한 두 번째 문제의 시발점이었다.

***

"하아……. 그러니까, 이걸 키우자는 것이냐?"

연잎과도 같은 녹색 머리털에 연꽃과도 같은 분홍빛 젤을 늘어뜨린 라보라도, 련이 작은 생명체를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그러자 '이거'로 지칭된, 자그마한 소형견 크기의, 비에 쫄딱 젖은 생명체가 답했다.

"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이름은 지었어! 이록스라구! 이, 록, 스! 그리고 난 '이거'가 아니라 엄연한 페콕이야. 아직 칙콕이지만."

짙푸른 눈에 금빛 동공을 가진 이록스는 저보다 까마득히 높이 달린 련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자신이 페콕인지 칙콕인지 하는 종족이라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지 우쭐거리는 태도는 덤이었다.

"근데 나 너네 쳐다보느라 목 빠질 것 같은데 누가 좀 들어주면 안 돼?"

그렇게 덧붙이며 이록스는 수 또한 빤히 올려다봤다. 쪼끄만한 것이, 태어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뻔뻔한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배운 오만인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수는 자신과 련의 숙소까지 이록스를 데리고 왔을 때 그러하였듯이 그를 살포시 들어서 품에 안았다. 대신 이번에는 수건으로 포개어 감싸서 랩가운이 축축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수의 가면 속 눈동자가 이록스를 가만히 내려다보자 이록스는 싱긋 웃으며 만족스러운 체를 했다.

련은 제 분홍색 꽃잎 모양 젤 사이로 이마를 짚었다. 여간 곤란한

Copyright 2025. 사이로핀 all rights reserved.

상황이 아니었다. 련은 지금까지 이록스에게 들었던 내용을 정리해 봤다.

"자, 너…… 이록스는 칙콕인가 페콕인가 하는 종족이고, D-Terra에 오래 전부터 있어 온 선구 종족인데. 한 달쯤 전에 서울숲 어딘가에서 부화했다 하였지. 그리고 칙콕들은 지식을 먹고 자라서 뭔가를 가르쳐 줄 스승이 필요하고, 그게…… 저 라보라도, 수라는 게냐?"

련은 수를 책망하듯 허탈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수는 표정 하나 알 수 없도록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간 련이 수를 보아 온 바, 그가 난감해하기는 해도 한치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음을 알아챌 수 있었다.

련의 심각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록스는 수의 품에서 쫑알쫑알 대꾸하기 시작했다.

"맞아. 나는 아직 칙콕 상태인 페콕인데, 부화하고 나서 스승을 찾으려니까 도통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공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만 겨우 받아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때 딱 얘가 보였어! 필이 짜르르하고 왔지. 이름이 수라고 했지? 난 수를 내 스승으로 찜했어!"

"스승……."

련이 눈을 찬찬히 꿈벅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 어리버리한 놈을 스승으로 삼겠다니 안목도 참 대단하구나."

련이 거기까지 중얼거렸을 때 이록스는 자신을 안은 수의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어리버리하다고?"

수가 련을 노려보며 감정을 꾹 눌러담은 어조로 말했다. 련이 쯧, 하고

Copyright 2025. 사이로핀 all rights reserved.

혀를 찼다. 그러곤 굳이 일을 더 키우고 싶지 않다는 듯 점잖게 사과했다.

"그 말은 철회하겠네. 미안하오."

이럴 때마다 련의 빠르고 깔끔한 인정과 사과는 도통 꼬리젤을 물고 늘어질 수도 없게 만들어서 수의 속을 긁는 면이 있었다. 연배 비슷한 중고참 라보라도 주제에 혼자서만 고리타분한 말투로 지긋이 나이먹은 척이나 하고 말이야. 수는 정말 미안한 건지 미심쩍다는 태도로 련을 바라보다 이내 이록스에게로 눈길을 옮겼다.

"그래서, 내가 스승이 되면? 뭘 어떻게 하면 돼?"

"나에게 지식을 줘! 그리고 너를 보고 배우게 해 줘. 뭐든 좋으니까!"

이록스는 발랄한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를 배운다고 생각하니 신이 났는지 안긴 상태로 몸을 들썩였다. 이록스의 머리깃털이 술렁술렁 흔들렸다.

"날 보고 배울 거야 많지. 나는 수수께끼를 연구하는 라보라도거든."

"수수께끼? 그게 뭐야? 길에서 찰옥수수 파는 건 봤는데! 라보라도가 먹는 거야?"

"으핫, 수수께끼는 음식이 아니라……."

수와 이록스가 저들끼리 쿵짝이 잘 맞는 대화를 오손도손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련은 은은하게 웃었다. 낡고 지친, 어딘가 해탈한 듯한 미소에 관심을 주는 라보라도나 칙콕은 이 집 안에서 어디에도 없었다. 정말이지, 룸메이트의 동의도 없이 시끄럽고 말 많은 개체를 들여와서 키우겠다고 하다니. 평소 사색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좋아해서 D-Terra에서 머물 숙소도 이렇게 근교로 마련한 련으로서는 이 갑작스러운 사태가 끔찍하기 그지없었다.

Copyright 2025. 사이로핀 all rights reserved.

하지만 련은 또한 라보라도로서 생각했다. 수가 저 칙콕에게 간택된 것은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마저도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이 이어진 결과일 터라고. 인연을 연구하는 라보라도로서는 이 또한 관찰할 법한 일이다. 관심있게 지켜볼 관계가 늘어난 셈이다.

'……한동안 연구 소재가 닳을 일은 없겠군.'

예고 없이 데려온 식구이긴 하지만 지식을 먹고 사는 생물인 데다 크기도 조그마하니 딱히 생활비도 많이 들지 않을 것 같고, 저 시끄러운 입만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데. 여전히도 손발이 척척 맞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수와 이록스를 련은 지그시 노려보다가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자꾸 떠들 거면 네 방에나 들어가게!"

그러면서 련은 녹색의 발로 수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아아, 알겠다고 차지 말라고! 젤 긁힌다고! 젤을 얻어맞은 수가 팬스레 차인 부위를 문지르며 툴툴거렸다.

네네, 어련히도 긁히시겠소이까. 련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아늑하고도 안락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하고 닫았다.

***

그렇게 수와 련, 이록스의 동거가 시작된 지도 한 달 째. 수는 자신이 D-Terra에 처음 차원을 이동해 왔을 때 느꼈던 곤란함에 맞먹는 수준으로 난감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뭔데? 샀어? 그거 비싼 거 아냐?"

"안 샀어, 안 샀고…… 무엇보다 난 바이올린 연주할 줄 몰라."

"그럼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건데? 스피커에서 나는 거지?"

Copyright 2025. 사이로핀 all rights reserved.

"그래, 스피커에서 소리가 난다고."

"근데 있잖아, 수!"

이록스가 그 문장을 꺼냈을 때 수는 '시작됐다'고 직감했다. 무엇이 시작되었는가 하면,

"스트라디바리우스도 바이올린이고 스피커도 바이올린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왜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스로 시작해서 스로 끝나는데 스피커는 스로 시작해서 스로 안 끝나? 스피커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장황하고 어처구니없는 질문 공세가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지식을 먹고 사는 생물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집요하게 호기심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그 페콕이라는 종족 중에서도 이록스가 유난히 지식욕,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자면 식탐이 많은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오래 전부터 인간과 함께해 왔다지만 페콕에 대해 알려진 바는 별로 없었고, 그래서 수는 어떻게든 얼렁뚱땅 이록스의 육아를 맡아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록스의 지식욕은 도무지 라보라도로서도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다. 라보라도의 경우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무한히 탐구하는 반면, 이록스는 관심 있는 분야를 못 찾아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이 있는 건지는 몰라도 틈만 나면 수에게 질문 공세를 해댔다.

"저기, 이록스?"

"응!"

"스트라디바리우스와 스피커에는 서로 인과관계가 없어. 상관관계도 없고. 옛날에 만들어진 악기와, 세상의 어떤 소리든 송출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야."

Copyright 2025. 사이로핀 all rights reserved.

"그래? 그럼 스트라디바리우스 얘기는 왜 꺼낸 거야?"

"……네가 이 곡이 뭘로 연주된 거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럼 이 곡은 '스피커스'로 연주된 게 아닌 거지?"

"그래."

"아하!"

그 감탄사가 나왔을 때 수는 비로소 안심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었다는 것만 제외하면.

'하, 이거 지적하면 분명히 또 말꼬리 잡고 늘어질 텐데…….'라고 수는 생각하였지만 연구자로서의 본능이 그만 입을 열게 했다.

"……그런데 이록스, D-Terra의 언어로 물체의 원래 이름 뒤에 스, 가 붙으면 그건 대체로 복수형이야. 여기는 스피커가 하나뿐이라서 스피커스라고 부르면 안 돼."

"그래?"

"그래."

"그렇구나!"

"응, 그런 거야."

"그럼 내 이름이 이록스인 건 이록이 여러 개라는 뜻이 되겠네! 이럴 수가! 몰랐어!"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양 이록스가 수의 책상 위를 우다다 뛰어다녔고 수는 잔뜩 흐트러진 논문 초안을 보고 가면을 쓸어내렸다. 침착하자, 침착…… 상대는 아기다, 아기다, 아기…….

"근데 있잖아, 수!"

수는 마른침을 삼켰다.

"이록이라는 단어도 있어?"

Copyright 2025. 사이로핀 all rights reserved.

"……."

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왜 대답 안 해줘? 수, 수는 알고 있잖아, 수!!!"

"……나도 몰라, 제발 그만 물어봐줄래……?"

수는 잔뜩 지친 기색으로 의자에 몸을 풀썩 기댔다. 이록스가 수의 랩가운을 잡아당기며 답을 보채고 있었지만 수는 그걸 말릴 힘도 없었다.

'조그맣고 귀엽게 생긴 게 나를 간택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었어.'

육아는 어렵다.

호기심 많은 어린 개체를 돌보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그것이 수가 D-Terra에서의 두 번째 문제에서 얻은 교훈이었다.

Copyright 2025. 사이로핀 all rights reserved.